

특별리포트

# 진안군 SNS 홍보 빛났다

페이스북 등 팬 2만여명과 쌍방향 소통으로 도지사 표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만 명의 팬과 쌍방향 소통에 힘쓴 진안군이 지난 23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진안군은 올 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2개 SNS채널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 관광지 및 맛집 정보, 재난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공감홍보를 펼쳐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온라인 매체 활성화에 힘쓴 진안군은 팬들의 조회 및 호응도가 높고 전라북도와 자료 공유가 활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진안군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inangun)의 팬 수는 2만 명으로 지난 6월 1만 명의 팬을 확보한 후 6개월 만에 1만 명 이상 늘었다.

진안군 페이스북이 단기간에 2만 팬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딱딱한 팩트(Fact) 위주의 정보 전달을 지양하고 부드러운 공감형 콘텐츠로 팬들과 교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 개가 흘러가는 뉴스피드나 타임라인에서 정책고객들



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스토리텔링, 흥미로운 이미지 콘텐츠를 통해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진안군 페이스북은 진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소재로 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책과 정보, 행정서비스는 물론 관광, 축제, 농·특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진안고원의 숲과 계곡, 하천 등 진안고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7월 폭우가 쏟아지는 날 활

영해 올린 △비 오면 나타나는 마이산 폭포 동영상은 46만 명 도달, 좋아요 2250명, 댓글 218개, 공유 1287회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진안홍삼축제 D-50 기념 이벤트(19만 명 도달, 좋아요 4912명, 댓글 854개) △진안읍 연장리 원장마을 꽃잔디동산 동영상(7만 명 도달, 좋아요 616명, 댓글 175개) △마이산 벚꽃길 동영상(5만 여명 도달, 댓글 73개) 등도 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올해 정부 평가서 33개 부문 수상

인센티브 40억원 확보

장수군은 올해 정부 주관 평가에서 기관표창 등 33개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는 12개부서 22건의 수상, 올해는 15개부서 33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40억원을 확보해 전년보다 3배 이상을 확보했다. 특히, 환경·안전·문화·복지 등 전분야에 걸쳐 수상을 한 점도 눈에 띄어 볼 수 있다.

주요 표창내역은 2016년 도로명주소 업무 국무총리표창, 산림청의 제15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전국 1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전북 1위, 산불 기계진화대 지상진화 경연대회 전북 1위 등이 있다.

또한 분야별로는 문화분야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4년 연속 전북 시군 대표 축제에 선정, 안전분야인 국민안전처의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에 2년 연속, 임업분야 전라북도 숲가꾸기 우수기관 2년 연속, 복지분야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 전라북도 국가 안전리 및 건강검진 사업 수행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예년에 수상하지 못했던 환경분야에 순환골재 재활제품 활용 우수기관,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 분야별 고른 실적을 거뒀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조직관리 '행자부장관상'

진안군은 지난 23일 정부서훈장사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조직관리담당 워크숍에서 '2016년 하반기 조직관리 분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혁신·효율화 등 조직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14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진안군은 민선6기를 맞아 적극적인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16년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 달성률이 높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완료... 80억원 투입

완주군이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해 모악호수마을, 숲 테마박물관 등 대규모 시설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구이면 일원에서 모악호수마을, 숲 테마박물관, 완주 모악 여성한방클리닉 특구 조성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지난 2013년 10월 완주 모악 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와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기존 700톤/일의 하수처리시설을 1,700톤/일의 규모로 1,000톤/일로 증설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 구이면 일원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 귀농귀촌 등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구이만의 생활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30일까지 군청 로비 특별전시

완주군은 완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문화유적, 축제·행사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실시한 '2016 완주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서 당선된 수상작들을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군청 로비에 특별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진 마니아들이 참여해 완주의 자연과 문화관광자원, 축제행사, 생활문화 등 다양한 소재로 한 작품 총 300여점이 출품됐는데, 지난 11월 심사를 거쳐 81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완주의 색깔이 강한 프리프로즈 축제와 와일드 푸드 축제 등 각종 행사 사진이 입상작으로 많이 뽑혔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순간의 아름다움이 잘 포착되어 여러모습을 담은 관광지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상전 김중환 면장 명예퇴직

이 36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6년 12월 28일 명예로 퇴임을 하게 되었다. 김 면장은 동향면에서 태어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는 평을 듣는 그는 1981년 9월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 생활을 시작해 용담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을 두루 거쳤고, 2010년 11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해 2012년 6월까지 동향면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2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임해 의회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으며, 올해 초 상전면장으로 부임해 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매사에 그르침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진안군 발전에 큰 토대를 쌓았다는 주위의 평이다.

김중환 면장은 "작은 농장을 꾸리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며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형설지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내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사업비 확보... 사서 2명 채용

무주군이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들과 수험생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무주군은 군립도서관이 책읽기와 학습은 물론, 다양한 문화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4천 5백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사서 등 도서관원 자격증 소지자도 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야간 독서프로그램을 비롯한 강연회 등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문화체육시설 허준철 담당은 "직장 때문에 평일에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직장인들, 학습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던 수험생들도 이제는 야간 시간을 활용한 자기 계발과 독서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린이 자료실을 따



로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54석의 열람석을 갖춘 무주군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에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의 분야를 총 망라한 43,000권의 장서가 구비돼 있으며, 그동안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학습을 위한 공간은 물론, "길 위의 인문학 특강"을 비롯한 "1일 사서 체험교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일자리 확대 주력

노인·여성·장애인·공공근로 등 3000여명 일자리 마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생활 활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무주군은 올 한 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여성과 장애인, 산림분야,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3천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지지대가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1,377명의 일자리가 마련됐던 노인일자리사업은 무주 반딧불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대한노인회와 각 읍면,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통해 운영됐으며 참여자들은 보육시설 생활습관 지도를 비롯한 향토문화 자원조사, 농촌일손돕기 등의 분야에 참여했다.

또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와 다모아

협동조합, 지역아동센터, 자활센터 등을 통해 250여 명이 새 일자리를 찾았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동 등 산림분야 11개 일자리에 90여 명이 종사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김 모 할아버지(75세)는 "나이 들어서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도 같고 좋다"며 "내년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여러 사람들 생활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진행이 됐으며 152개 분야에서 연 평균 1천 2백여 명이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 14개 시·군 전체 공공근로 종사 인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실업률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백선미 일자리 담당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효율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2억 여 늘려 10억 여 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농번기에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농가일손부족 현상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완주군,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최우수상'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 조성 10원씩 적립 소외주민에 기부

전북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가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장 및 50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인증 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도는 독서를 조직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직장 내 동아리, 개인을 대상으로 독서경영 인프라 구축, 운영, 성과로 구분된 21개 분야별 지표에 대해 실시했으며 총 3년의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완주군청은 지난해부터 군청 각 층마다 무인 독서코너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틈틈이 독서하는 부서 및 직원을 선별하여 시상하는 등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단순 독서에서 멈추지 않고 책 한 페이지

를 읽을 때 마다 10원씩 적립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소외된 주민에게 기부하는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민선6기 군청 핵심키워드인 '소통, 변화, 열정'에 부합하는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독서'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배움과 문화로 으뜸가는 완주군을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청년고용 문제해결 '앞장'

민·관·산·학 24곳 참여

완주군은 민·관·산·학에 걸쳐 24개 기관이 참여한 완주군 고용협의회의 중심의 '완주군 청년 고용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의에는 완주군 관내 기업의 직원 채용 핵심 부서장이 참여해 청년 채용 미스매치에 대한 실질적 토론과 대안제시로 사업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인 우석대학교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발전재단, 전북민적지원위원회, 전주벤처협의회, 휴먼제이엔씨 등 정보도 중간지원조직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 고용센터 등 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함께 해 청년고용의 문제해결에 팔을 걷어부쳤다.

/완주=이종복 기자

##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선정

태양광 지열시설 설치 추진

장수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9억 2600만원을 지원받아 태양광·태양열, 지열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에너지 자원과 구역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풍력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말 발표한 2017년 신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공개 평가와 현장평가결과,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장수군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시설은 장수군보건의료원장례식장 지열 50RT, 장수노인복지관 태양광 47kw,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48kw 등 장수군 읍면사무소 등 공공건물 11개소에 태양광 172kw, 지열 280RT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이미지 개선 및 운영비용 절감, 배출을 억제하여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실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